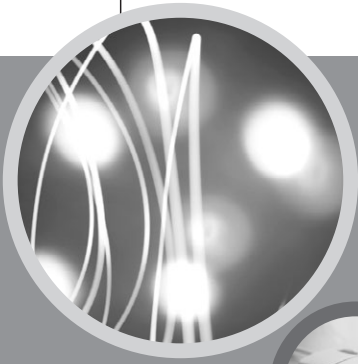


“최첨단 광학정보 전달의 메카, 광학세계”



(주)카이스 영입기획팀
김규훈 과장

디지털 사무기기 전문기업 (주)카이스(www.kysys.com) 영업기획팀에서 마케팅(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규훈 과장입니다. 난생 처음 원고 청탁을 받으면서 과연 글재주가 없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글을 써야 할 지 무척이나 망설이게 되더군요. 그러나, 몇 일을 고민하면서 얻은 생각은 오히려 기자나 전문 투고가가 아닌 범인(凡人)으로 솔직한 느낌을 전달한다면, 본 『광학세계』를 애독하는 많은 독자께 또 다른 느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명감(?)이 생겨났기에 부족한 글이나마 이어볼까 합니다.

회사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제가 근무하는 (주)카이스는 25년간 도면 및 청사진, 복사기, 대형 출력기기 등 와이드포맷(Wide Format)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지켜오고 있으며, 많은 네트워크 환경개선의 노하우와 솔루션 기반 디지털 잠재력을 축적해 온 창조적인 기업입니다. 2001년 코스닥(KOSDAQ) 상장을 통해 기업을 공개하였으며, 2004년 일본 도시바 테크(TOSHIBA TEC)와 디지털 복합기 국내 영업을 전개함으로써 디지털 사업영역을 더욱 견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체 기술을 통하여 디지털 복합기 전용 프린팅 솔루션 및 환경 친화적 제품을 개발하는 등 R&D 분야에도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광학이란 분야는 그 영역이 너무 광의적이어서, 쉽게 접근해 보려 해도 접근이 어려운 학문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모든 산업에 광학기술이 접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그 활용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현재, 몸담고 있는 사무기기에서도 광학은 여러 기술과 기능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 하는 기술, 여기에 전자문서를 다시 새로운 종이문서로 전환하는 기술에는 광학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광학세계』를 일찍부터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첨단 광학정보 전달의 메카, 광학세계”

그리고 디지털 복합기는 과거 아날로그 방식에서 진화하여 현재는 디지털과 컬러가 시장의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광학세계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특집기사로 여러 차례 게재한 바 있으며, 그 특집기사는 사무기기 업계의 향후 사업방향 전개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광학이라는 광의적 과학과 기술 아래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정보가 『광학세계』라고 하는 전문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은 시장분석을 주 업무로 하는 저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전사적 영업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국내·외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의 내용을 전달해 줌으로써, 광학적 기술과 디지털 트렌드(Trend)의 이해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광학세계』는 아직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어려운 매체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 개인도 사무기기라는 특정적 콘텐츠와 관심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 이해의 깊이가 낮아 초기에 읽기조차 포기한 여러 기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광학기술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다 보니,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익한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도 전부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욕심(?)일까요?

언제나 가장 앞선 기술과 최신의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광학세계』. 지금의 활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앞선 욕심이 결코 욕심만으로 머무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으로 만나 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